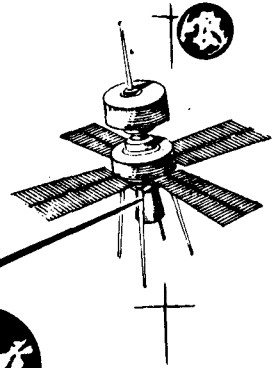


양계 안테나



南斗熙
본지 편집부장

육계업 발전, 40대 기수들을 주시한다

닭고기 130톤, 쇠고기 100톤, 돼지고기 80톤—이는 '88서울올림픽 기간동안 선수촌에서 소비된 육류소비량으로 이는 세계젊은이들이 평균적으로 섭취한 수준이다. 미루어 보면 닭고기 소비량이 42%로, 세계인의 육류소비량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게 닭고기가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즉 닭고기는 세계인이 가장 즐기는 육류인 것이다.

이러한 자료가 밝혀진 때에 즈음하여(10월13일)국내 육계산업 30년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육계업자들이 잠실벌 교통회관에 모여 육계인대회를 가졌다.

연간 2억7천만여수를 생산하는 4~5천억원의 닭고기시장 규모로 보면 늦은감도 없지는 않지만 육계산업을 보다 건전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육계인들의 의지가 뒤늦게나마 결집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번 전국육계인대회는 외형적으로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342명이 등록해 성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진행도 짜임새있게 치루어졌다.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 확일적으로 집행자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행사에 이질감을 느끼는 양계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마저 주었다 하겠다.

대부분 40대 젊은 축산인들인 대회추진위원들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질서유지 등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전국에서 참가한 육계인들은 훈훈한 동료감과 연대감을 느끼며 동업자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데 깊은 공감을 가졌다.

남에게 의뢰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진지하게 논의하고, 준비된 세미나에서 자리를 뜨지않고 힘써 배우는 자세는 어느 회합에서 볼 수 없었던 진솔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육계산업이 이날 행사를 시발점으로 안정적 발전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불합리한 산업저해 요소를 단합된 의지로 차분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데 산업을 아끼는 참석자 모두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육계인들은 이번 대회에서 국제화시대에 당당히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동업자간의 협조로 산물제값받기와 건전한 유통에 앞장설 것과 자율생산조절, 생산물의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소비없는 생산은 무의미하다는데 공감해 닭고기 소비홍보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생산자 조직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결의사항을 실천기로 했다.

대회를 앞두고 일부에서 있었던 참가, 불참의 시

비는 육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모이는데 전제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명분에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졌고 일부 왜곡된 시각에서 초점을 흐리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육계산업 제2 도약의 발화점이 되기에 충분했다는 평이다.

육계산업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산업화된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육계농민의 단합된 의지를 한데 모아 구심점을 형성, 산업주체를 육계인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본대회에 참석한 모든 육계인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육계산업 도약의 불씨를 잘 키워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추진위원들의 계속 노력을 당부한다. 행사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추진한 40대 기사들의 힘찬 전진을 기대한다.

양계산업의 도약은 조직활성화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축산인들은 육계인을 주시하고 있다.



양계산업과 더불어 19주년

「월간양계」가 이번호로 창간 19주년이 되었다.

하나의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잡지 역사가 19년이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양계산업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다.

외국인을 포함한 타산업의 종사자들은 처음 접하는 「월간양계」를 보고 감탄사를 보내며 우리 산업의 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19년간 단한번의 결간도 없이 220호를 발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꾸준한 성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산업발전을 갈망하는 독자들의 건전한 충고, 주옥같은 원고를 성심성의껏 보내주신 원고집필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준 광고 스폰서, 예리한 통찰력과 애정으로 잡지의 방향을 잡아준 편집위원, 한권 한권 열과 성으로 발간에 임했던 편집담당자들 모두의 노력이 결집되어 이루어 낸 결과라 생각한다.

실로 지난 19년동안 월간양계는 약7천여건의 기사 게재로 국내 축산업계에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다루며 우리나라 축산업 근대화에 큰 획을 그으면서 업계에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의 비전을 제시해 왔다.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양적인 팽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지난날 양계산업의 나침반으로 선도적인 기능을 잘 감당해 왔다. 업계보다 한발 앞서서 국내외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고, 양계인들의 대화의 장으로 새롭고 산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하고, 양계인들 의사를 정부나 관계요로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도와주는 사전으로, 각종 통계에 의한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산업이 어려울 때면 양계인의 울분을 터뜨릴 수 있는 통곡의 장으로 이용되어 왔다.

주변 환경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잡지편집의 내용도 시기적절하게 변화를 꾀 초창기 육종·사료·사양·질병 등 새로운 기술을 위주로 편집하던 것이 최근에는 유통·소비·정책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

고 현장감 있는 취재·탐방기사 회수가 늘고 있다.

광고계재에 있어서도 초창기 원색광고와 단색광고 비율이 거의 1:1이던 것이 최근 원색75%에 달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게재수에 있어서 10여년전 부화장→사료→약품→기계·기구 순에서 오늘날 기계·기구→사료→약품→부화장의 순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업계의 바뀔에 대한 단적인 표현이라고 보아진다.

앞으로 「월간양계」는 민주화시대에 양계인들의 다양한 여론을 모으는 중추신경으로서의 기능과 상업화된 농업시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통 시장 정보에 대한 심도깊은 내용을 게재하고 다원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보다 전문성을 높혀 고도의 정밀자료를 기획·분석·편집해 나갈 예정이다.

급속한 변화를 맞고 있는 시대의 정신적 양식으로의 기능도 좀 더 보완해 문화·교양에 대한 관심을 높혀 나가며,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정부의 정책 여하에 따라 산업의 향방이 좌지우지되는 현실에서 과거 60년대부터 추구해오던 농업의 기술우위의 '중산 정책'이 경영우위의 '유통중심의 정책'으로 바뀔 수 있도록 건전한 정책제안을 과감히 지속적으로 펴 나갈 예정이다.

월간양계는 이를 위해 양계인의 끈적끈적한 전통을 거울삼아 새로운 각오로 참신한 기획, 전문기자의 양성 등 부단한 노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양계인으로 월간양계를 더욱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다짐한다. **양계**



① 사무실에서 정보지로써...



② 휴식중 부녀자들까지도 독자카 되어



③ 양계업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